작지만 알차고 건강한 공연 '힐링 콘서트'를 키우자

광주가 브랜드 공연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시민들의 참여로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의 풀뿌리 음악회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지난 7일 무등산 자락의 전통문화관 너덜마당에서 열린 음악회 '달빛오딧세이-유배의 노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10〉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❾ 풀뿌리 음악회

지난 10년 동안 아름다운 무등산 풍경을 배경으로 성장해온 '무등산 풍경소리'의 100회째 공연. 〈무등산 풍경소리 제공〉

대전의 문화브랜드로 전국 명성을 자랑하는 '별 음악회'. 〈대전 시민천문대 제공〉

무등산 풍경소리·달빛 오디세이 등

지역 음악인-시민 함께 꾸미고 즐겨

자연+음악, 일상 치유하고 감동 선사

경쟁력있는 공연 지원해 대표브랜드로

매주 주말 밤이면 과학의 도시 대전에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린다. 하늘에서 수많은 별이 쏟아지고 땅 위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별음악회'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별 음악회는 '대전에 가면 꼭 봐야 할 콘서트'로 불린다. 지난 5월 19일 별음악회의 600회 야외특별무대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의 관객들이 객석을 메워 전국적인 명성을 실감케 했다.

별 음악회가 세상에 첫선을 보인 것은 지난 2002년 3월. 일반인들도 천체관측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국내 최초의 대전시민천문대(대장 최형빈) 개관 1주년을 맞아 아마추어 성악가(테너) 심우훈(안과의사·별 음악회 총감독)씨 등이 주축이 돼 시작됐다. '도심속에서 만나는 별과 낭만의 하늘놀이터'라는 기치를 내건 대전시민천문대가 단순히 별과 태양을 관측하는 과학시설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지난 2002년 3월3일 밤 8시 심씨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은 시민천문대 천체투영관에서 첫번째 음악회를 꾸몄다.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심씨와 지역 음악인들의 열정으로 탄생된 별 음악회는 색다른 볼거리로 단숨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성악가나 연주자들이 음악을 들려주는 동안 하늘에서 끊임없이 별이 쏟아지는 풍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별 음악회의 매력은 말 그대로 '별속에서 공연을 즐긴다'는 점이다. 시민천문대 천체투영관의 객석(100석)에 앉으면 조명이 꺼지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진다. 30여 분이 흐른 후 관객들이 음악에 깊이 빠져든 순간 돔 스크린을 가득 메운 가상의 밤 하늘에서 3000여 개의 별이 객석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한다. 음악회의 인터미션(중간휴식)에는 시민천문대의 별 전문가가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준다.

약 1시간의 음악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별과의 데이트'가 기다린다. 관객들은 8m 크기의 원형돔으로 만들어진 천체관측실로 자리를 옮겨 행성은 물론, 성운·성단·은하 등으로 구성된 밤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누비게 된다.

이처럼 매주 토요일 열리는 별 음악회가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 2008년 부터 격주로 금요음악회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매번 별 음악회는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음악애호가들로 인해 티켓예매전쟁(무료·1인2매제한)을 치러야 할 정도로 대전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잡았다.

대전 별 음악회의 600회 무대를 한 달 앞둔 지난 4월14일 광주에서도 뜻깊은 음악회가 열렸다. 무등산 자락의 별과 바람, 달 등을 테마로 한 '무등산 풍경소리'의 100번째 공연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만나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힐링 음악회'를 내건 이날 무대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통기타리스트 50 여명과 포크음악 레전드 5명이 참가해 무등산 자락을 아름다운 기타선율로 물들였다.

무등산 풍경소리의 100번째 무대가 특별한 건 스스로 생명력을 키워온 풀뿌리 공연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7월 광주 유일의 '친환경 음악회'를 모토로 싹을 틔운 무등산 풍경소리는 지난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 보름달이 뜨는 증심사 마당에서 생명과 문화가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속으로 스며들었다. 불교 뿐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의 관계자들은 종교를 초월해 무등산 풍경소리의 든든한 울타리를 자처했다.

증심사는 음악회에게 안마당을 기꺼이 내주었고 시민들은 '숨결회원'이라는 모임을 꾸려 매월 후원금을 내놓았다. 그간 백창우·이정열·한동준·이상은·사토 유키에·송시현·이정선·안치환·이장순·한보리·김원중·박문옥 등 음악인들과 박남준·고재종·황대권·박원순·이태수·정용주 등 이야기 손님들이 출연해 시민들과 함께 환경과 생명, 문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무등산 풍경소리 100회를 기념하는 기록전시회 '우리가 부른 노래들'과 10주년 기념 음반 '손잡아요'를 출간했다. 이 음반에는 박창근, 한보리, 허설, 손병휘, 오영묵, 박문옥, 하림 등 17명 가수들의 노래로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담아냈다.

지난 7일 무등산 자락의 전통문화관 너덜마당에서 열린 '달빛오디세이-유배의 노래' 도 무등산 풍경소리 처럼 음풍농월을 컨셉으로 한 '작은 음악회'다. 지역의 음악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꾸미고 즐긴다는 점에서 풀뿌리 음악회인 셈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신생 음악회이지만 작곡가 김현옥(전남대 겸임교수)씨가 작곡한 클래식, 국악, 가곡 등 다양한 음악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날 김 씨는 유배생활 18년 동안 수많은 글을 남긴 다산 정약용의 삶과 정신세계를 기타와 가야금, 바이올린 등의 선율로 들려줬다. 매년 가을 밤과 둥근 달빛을 무대로 한 달빛오디세이는 음악과 미술, 음식, 그리고 멋진 풍광으로 시민들에게 잊지못할 '10월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들 풀뿌리 음악회가 값진 이유는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명품공연'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 나경수 교수(국어교육과)는 "근래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아리랑축전 등 대규모 브랜드 공연이나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이들 경쟁력 있는 풀뿌리 음악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 페스티벌 광주' 등의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는 등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1306	1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 666-1 641㎡[이종암지분8분의1,이종대지분8분의1,이연숙지분8분의1,이문주지분8분의1,이재영지분8분의1,이성욱지분8분의1,이경화지분8분의1각지분전부]	답	1,121,800 1,121,800	농지자격증명필요
2012타경 3388	1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860-6 3009㎡[공유자전철순지분2분의1전부]	답	15,037,200 15,037,200	일괄매각.농지자격증명필요
		동소 861-10 1168㎡[목록1과지분내용동일]	답		
2012타경 4022	1	해남군 송지면 학가리 7 294㎡	답	999,600 999,600	농지자격증명필요
2012타경 4268	1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1907-1 3809.7㎡[윤진귀지분3809.7분의1977]	답	14,234,400 14,234,400	농지자격증명필요
	2	해남군 옥천면 용동리 산250-7 83405㎡	임야	91,745,500 91,745,500	일부전
	3	해남군 송지면 우근리 194-6 760㎡	전	22,026,800 22,026,800	일괄매각.목록3농지자격증명필요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268-1 3359㎡	전		
	4	해남군 송지면 우근리 194-8 2446㎡[현황:답]	대	21,267,400 21,267,400	일괄매각.농지자격증명필요
		동소 194-9 658㎡[현황:답]	대		
	5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1129-3 5372㎡	임야	8,595,200 8,595,200	농지자격증명필요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2타경 4428	1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719-1 364㎡	대	5,824,000 5,824,000	
2012타경 4503	1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6-13 776㎡	답	4,811,200 4,811,200	농지자격증명필요
2012타경 4657	1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14-3 1185㎡	답	8,176,500 8,176,500	농지자격증명필요
	2	동소 5-23 800㎡	답	5,600,000 5,600,000	농지자격증명필요
2012타경 4695	1	완도군 노화읍 신양리 141 1379㎡[현황:휴경농지]	전	10,796,700 10,796,700	일괄매각.농지자격증명필요
		동소 141-1 2344㎡[현황:휴경농지]	전		
	2	동소 152 655㎡[현황:휴경농지]	답	2,423,500 2,423,500	농지자격증명필요
2012타경 4749	1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315 1157㎡[현황:잡종지] 제시외 기계기구목록참조[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의한기계기구목록:별지기재와같음]	전	34,135,900 34,135,900	기계기구.제시외기구포함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2타경 3869	1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121 817㎡ 제시외 수영장 등 201.11㎡	근린시설	136,869,770 136,869,77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수목포함]
		동소 201-2 797㎡	대		
		동소 201-2 188.44㎡ 부속건물 근린시설12 9.6㎡ 제시외 내부지붕 등 171.2㎡	근린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2. 10. 29.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11. 5.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잠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권혁민